



이용수 |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수자원개발부  
(lyswater@dohwa.co.kr)

# 경안천 발원지 답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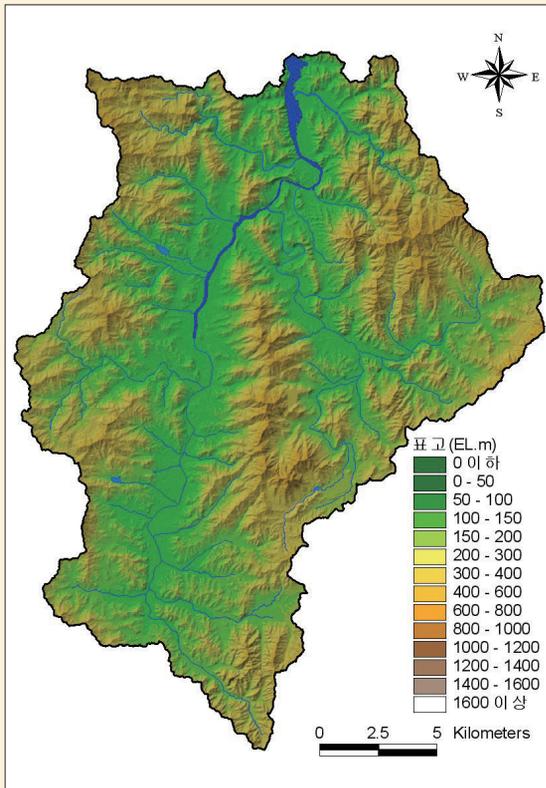
일시 : 2010년 8월 28일

## 1. 경안천 개요

팔당댐으로 흘러드는 하천은 크게 한강, 북한강 그리고 경안천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중 경안천은 팔당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북한강과 만난 후 서쪽으로 방향을 틀자마자 왼쪽에서 흘러드는 하천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흐르다가 용인시를 지나면서 양지천을 만나고 계속 북진하여 광주를 지나면서 곤지암천 및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변천을 만나 경기도 광주시 퇴촌에서 팔당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경안천은 동경 127°8'6"~127°26'50", 북위 37°9'40"~37°29'27" 사이에 위치하며, 유역면적은 561.12km<sup>2</sup>이다. 유역둘레는 136.78km이고, 유역평균폭은 11.84km, 유역평균표고는 EL. 180.81m, 유역평균경사는 27.01%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광주시가 373.92km<sup>2</sup>, 용인시가 187.21km<sup>2</sup>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경안천 표고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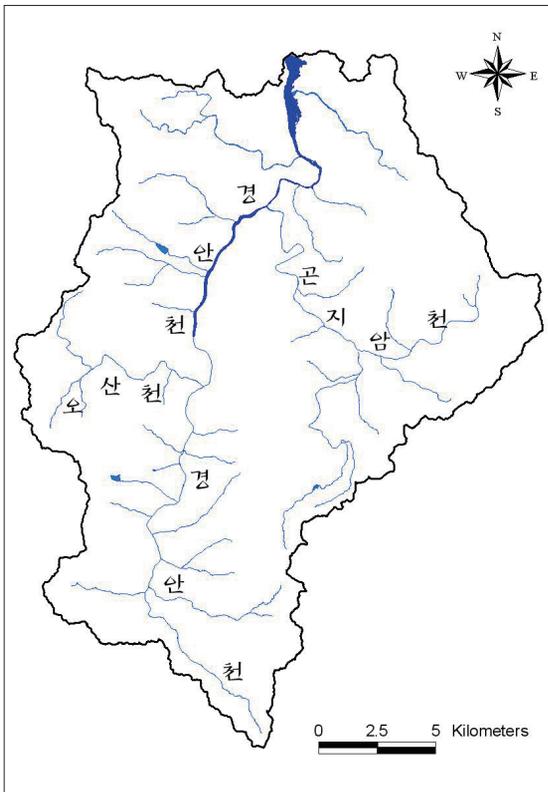


〈그림 2〉 대동여지도상의 경안천 하구

경안천의 명칭은 광주시 경안동에서 비롯되었다. 경안동은 1910년 면제를 실시할 때는 경안면이라 했으나 1932년 7월

5일 경안면을 광주면으로 개칭할 때 서울에서 가깝다고 하여 경안리로 바뀌었다가 2001년 3월 광주군이 시로 승격하면서 경안리에서 경안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강 이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경안천이라 부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 강이 용인군 군청소재지인 김량장리를 관류하므로 김량천이라 부르기도 했다.

문헌상에 있는 경안천에 관한 기록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8권 양지현(陽智縣) 편에 “추계(秋溪) 곧 현의 남쪽 시내인데, 근원이 정수산(定水山)에서 나와서 어은산 앞을 지나, 용인현(龍仁縣)의 금령천(金嶺川)과 합하여 광주(廣州) 소천(小川)으로 들어간다” 또한 “정수산 현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데, 진산(鎭山)이며 일명 대해(大海)라 한다” 라고 하였다. 즉 오늘날의 경안천은 조선시대에는 금령천(金嶺川)이라고 불렸고 양지현은 추계(秋溪)라 불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지현을 본류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수산은 현재 영동 고속국도 양지터널이 지나가는 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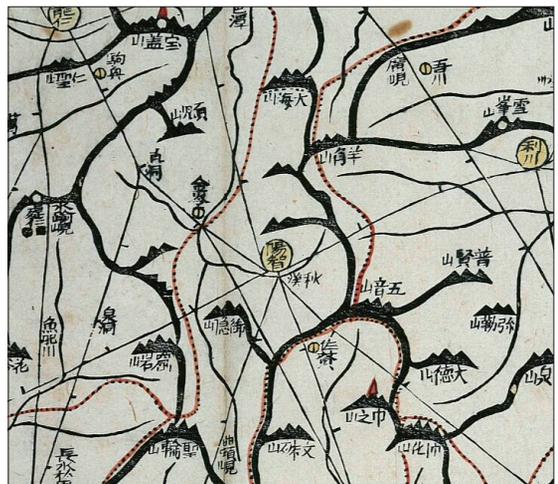


〈그림 3〉 경안천 하천분포도

같은 책 제10권 용인현(龍仁縣) 편에 “금령천(金嶺川) 금령역 남쪽에 있다. 물 근원이 양지현 소로동(所路洞)에서 나와, 북으로 광주 소천(小川)에 흘러든다” 라고 하였다.

또한, 같은 책 제6권 광주목(廣州牧) 편에 “소천(小川) 주 동쪽 30리에 있는데 도미진(渡迷津)으로 들어간다” 또한 “도미진(渡迷津) 주 동쪽 10리, 양근군 대탄 용진(龍津) 하류에 있는데, 그 북쪽 언덕을 도미천(渡迷遷)이라 이름한다.” 라고 하였다. 경안천이 용인에서는 금령천(金嶺川)이 되고 광주에 와서는 소천(小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미진은 현재의 팔당댐이 위치한 곳에 있었던 나루로 두미나루, 되미나루, 도미진, 두미진(斗迷津)이라고도 불리었다.

팔당댐 부근의 지형은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의 금단산과 양주군의 예봉산이 마주하는 협곡으로서 협곡을 흐르는 한강물은 매우 거세다. 오대산과 금강산에서 발원한 한강물은 각기 여러 고을을 지나 두물머리(양수리)에서 합류하니, 여기서부터는 그냥 한강이라고 하는데 수량이 많아진 한강물은 마재를 오른편으로 끼고 크게 한번 휘돌아서쪽으로 머리를 돌리며 좁은 협곡으로 치달린다. 이 협곡을 두미골이라 하니, 물살은 세고 협곡의 폭은 좁으며 곳곳에 암초가 솟아 있어서 건너기가 쉽지 않았다 한다.



〈그림 4〉 대동여지도 경안천 발원지 부근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경안천은 우천(牛川)이라 표기하고 있다. 같은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여지』

도』에는 경안천의 상류로부터 하류까지 비교적 자세한 지역별 하천이름이 표기되어 있는데 최상류는 별다른 이름이 없고 아래로 내려가면 양지쪽에서 추계가 합쳐지고 이어 용인을 지나며 금령천(金嶺川)으로 변하고 세피천(細皮川)이 되었다가 경안을 지나며 여기천(女妓川)이 되고 최종적으로 우천(牛川)이 되는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한편, 여러 가지 고지도중 『1872년 용인현지도』, 『광여도』, 『여지도』, 『지승(地乘)』, 『팔도군현지도』, 『해동지도』 등에 “비파담(琵琶潭)”이라는 표기가 여럿 등장하는데 이 명칭에 관하여는 조선시대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남구만(南九萬)과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용인의 향토사학자 이제학 선생의 책에 “남구만이 낙향하여 정자를 짓고 비파를 타며 경치를 즐겼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울창한 숲과 백로들이 나는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 청구영언에 실린 남구만의 시조도 이곳에서 지어졌다고 추측되고 있다. ‘동창이 밝았느냐 / 노고지리 우지진다 /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 재넘어 사래긴 발을 언제 갈려 하느냐’ 시를 어디서 지으신 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넘어’에 ‘재’를 장사래고개(갈월과 파담 경계, 45번 국도)라 하고 ‘사래긴 발’은 갈월 입구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비아수’ 하면 어렸을 때 미역 감고 자맥질 하며 바위에서 뛰어들던 날파란 보막이다. 경안천의 본류로 용인의 물을 모아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를 지나며 구만이산 아래의 큰 물막이 보를 ‘비아수’라 불렀지만, 행정구역으로는 모현면 갈담리다. 갈담리에서 노구봉 아래를 갈월 45번 국도 경안천 인접은 파담으로 구분하고 파담에는 남구만 선생의 사당이 있는 앞 개울을 비파담이라 부른다. 약천 남구만 선생이 말년에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생활 하였던 곳이라서 비파담으로 불리는 곳이다”<sup>1)</sup> 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용인 시민신문에는 “파담은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에 있는 마을이고 비야수는 파담의 또 다른 이름이다. 파담마을은 경안천가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금은 45번 국도에서 다소 빗겨난 마을이 되었지만 신작로가 생기기 이전에는 마을 앞으로 큰 길이 관통하던 마을이다.



(그림 5) 광여도상의 비파담

파담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숙종 때의 명신인 약천(藥泉) 남구만 선생이 낙향하여 여생을 보낸 곳이기 때문인데 이후 용인고을에서 ‘일 파담 이 능골’하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용성을 구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 이러한 칭송은 모두 약천 선생의 낙향과 은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금도 약천을 모시는 별묘(別廟)가 있고, ‘정자모텔이’와 같이 선생과 관련된 소지명도 남아 있다.

지명유래에 의하면 ‘조선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개울가에 정자를 짓고 비파를 타며 유유자적 하였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비파(琵琶)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현(絃)을 밖으로 튕겨서 연주하는 것을 비(琵琶)라 하고 안으로 튕기는 것을 파(琶)라고 부른다고 한다. 비파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악기로 중국에서 왔다고 해서 당비파(唐琵琶)라고 부르기도 한다.

남구만 선생이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강릉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시에 ‘오월비파담(五月琵琶潭)’이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선생이 낙향해 살던 파담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1760년(영조 36년)에 간행된 『여지도서』를 비롯한 역대

1) 이제학 “아름다운 용인의 산하” (2009년, 굿풀)

읍지를 보면 경안천 하류인 파담마을 앞에 비파담(琵琶潭)이 있다고 기록하였고 첩부된 지도에도 하천의 폭이 양쪽으로 둥글게, 마치 조롱박처럼 그려져 있다. 이는 마치 비파의 공명통 모양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로 인해 비파담이라는 운치 있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비파담은 다른 표기로 비파소(琵琶沼)라고 쓰기도 하는데 마을 입구에 세워진 「약천(藥泉) 남구만상공유허비(南九萬相公遺墟碑)」에도 같은 표기가 있으며 琵琶沼(비아수)라고 덧붙이고 있다. 비아수라는 마을 이름은 우리말 땅이를 같지만 실은 비파소가 변해서 생긴 이름인 것이다.

파담(琶潭)은 비파담의 준말이다. 즉 비파담으로 부르던 마을 이름에서 앞의 비(琵)가 생략되고 부르기 쉽게 줄어든 이름인 것이다. 이러한 예는 지명의 경우 자주 볼 수 있는데 석성산(石城山)이 성산(城山)으로 줄어든 것과 같은 예가 되는 것이다.<sup>2)</sup>

현재 용인시는 경안천 파담구간을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으로 계획하여 경안천 친수공간 조성을 기본 콘셉트로 수질개선과 더불어 용인팔경 중의 제7경인 ‘비파담 만풍’ 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에는 ‘약천문학제’를 개최하여 남구만 선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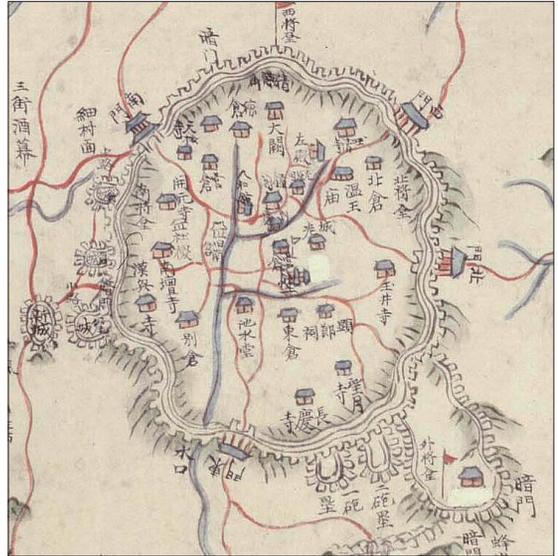
경안천의 지류인 변천(樊川)은 그 발원지가 남한산성내에 있는 청량산이다.

남한산성은 조선시대 명나라와의 청나라가 대립할 때 끝까지 명나라와의 의리를 주장하다 결국에는 삼전도(송과)의 굴욕을 겪게 되는 병자호란 최후 격전지라는 의미가 강한 산성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다.

이 남한산성에 관해 ‘한국의 산성’<sup>3)</sup>이라는 Web site에 실려 있는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627년에 발생한 정묘호란(丁卯胡亂) 때 후금(後金)과 조선이 형제의 나라로서 상호 평화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후 후금은 조선이 응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폐(歲幣) 요구와 명나라 공격을 위한 군량 납부, 군신지의(君臣之義)로 의 관계 변경 등을 피하면서 조선의 반발과 대항 움직임이 일

어났고, 이에 후금은 조선의 왕자를 볼모로 보내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림 6) 해동지도 남한산성 부근

병자호란은 조선이 이러한 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일어난 전쟁으로 1636년(인조 14) 12월부터 1637년(인조 15) 1월 29일까지의 전란이었다.

청 태종은 조선을 침공하기 직전에 국호를 개칭하고, 태종은 1636년 12월에 직접 12만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고,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넌 후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이 굳게 방비하고 있던 백마산성(白馬山城)을 피하여 쾌속으로 한양을 향해 진군하였다.

청군 선발대는 14일 이미 개성을 통과하였다.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자, 조정에서는 과천(播遷)하기로 하여 종묘사직과 원손(元孫), 봉림대군(뒤의 효종), 인평대군 등을 강도(江都: 강화도)로 향하게 하였다. 인조도 이날 밤 강화도로 피신하려 남대문까지 나왔으나 청군 선발대가 이미 지금의 서울시 불광동 일대인 양철평(良鐵坪)을 통과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강화도로의 피신을 포기하고 수구문(水口門)으로 나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인조는 당시 성안에 있던 1만 3천여 명의 병사로 하여금 성

2) 용인시민신문 - <http://www.yongin21.co.kr/>

3) 한국의 산성 - <http://samsung.culturecontent.com/>



(그림 7) 경안천 풍경(개인 블로그 - <http://kr.blog.yahoo.com/syard44/>)

을 지키도록 하였고, 조정에서는 팔도에 교서를 내려 관찰사와 도원수·부원수 및 각도의 감사·병사들로 하여금 근왕병을 모으도록 하는 한편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게 되었다. 당시 성안에는 양곡 1만 4천 3백석과 소금 90여 석이 있어 겨우 50일 분의 식량만이 비축되어 있었을 뿐이다. 산성으로의 피난이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져 미처 식량을 운반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이에 청군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12월 16일에 선봉이 남한산성에 당도하였고, 산성 밑 탄천에 포진하였다. 조선군은 포위된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별동대를 성 밖을 보내어 적병과 교전, 수십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 각지에서 출병한 구원병들이 모두 남한산성에 도착하기 전에 궤멸되거나 흩어졌고 의병들마저 별 도움이 되지 않아 거의 무기력하게 되었고, 명나라의 원병도 중간에 풍랑으로 인하여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로써 남한산성은 고립무원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성안

의 조선 조정에서는 점차 강화론이 제기되었고, 주화파(主和派)와 주전파(主戰派) 간에는 여러 차례의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대세는 강화 쪽으로 기울게 되었고, 강화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1월 22일 강화도가 청군에 함락 당하면서 피신해 있던 왕자와 군신들의 처자 200여 명이 청군에 포로로 잡혀 남한산성으로 호송되고 있었다.

1월 23일 청군은 남한산성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기 시작하여 사상자는 늘어났고, 25일에는 청군의 화포 공격으로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 1월 26일 저녁 조선의 사신이 청 진영에도착하자 청의 장수는 포로가 된 왕자를 불러와 대면을 시켰고 강화도 함락 사실을 확인한 조정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조정은 거의 10배에 달하는 청군의 공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식량의 고갈, 그리고 왕자가 포로가 되는 등 모든 정세가 불리해지자 항복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1월 30일 인조가 성을 나아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 태종에게 항

복하는 굴욕적 의식을 행했다.

병자호란의 패배는 조선왕조로서는 일찍이 당해보지 못한 치욕이며, 패전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먼저 조선과 청의 병력 차이를 들 수 있다. 당시 성안의 조선군은 1만 2천명 정도였으나 청군은 이의 10배에 달하였다. 아울러 군사의 숙련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청군이 전투에 익숙해 있었던 반면 조선군대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정에서 청의 공세에 대응하여, 전국의 병력을 미리 집결시키고 적절한 작전을 펼쳤다면 전세는 다른 양상을 띠었을 것이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을 빠져나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에게 항복을 한 것은 남한산성이 함락 당해서가 아니라 구원병이 궤멸되고,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화도가 함락되어 왕자가 포로가 된 상태에서 더 이상 저항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몰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의 군대에 비해 전반적인 열세 속에서도 남한산성과 같은 보장지(保障地)가 있었기에, 왕실이 피신하여 45일간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출성(出城)하여 항복했다는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 남한산성을 굴욕과 치욕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편협한 역사인식의 결과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병자호란 당시 척화론을 주장하다가 청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오달제, 윤집, 홍익한 등 삼학사의 영혼을 모신 현절사가 1688년 이곳 남한산성에 세워지면서 남한산성은 도리어 항청(抗淸) 의식의 정신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경안천의 지류인 번천(樊川)은 한국 역사의 한 장을 차지하는 큰 하천인 것이다.

## 2. 현지답사

경안천 발원지 답사는 2004년 1월 및 2010년 8월 2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2004년은 본인이 발원지 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집 주변의 여러 하천을 시험 삼아 답사하던 시기였고, 2010년 8월은 본격적인 발원지 규명을 위한 답사였다.

먼저 2004년 1월은 용인시 해곡동 한국석유공사 용인지사의 저유소 정문에서 주위의 산세 및 하천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정문에 도착하여 경비하는 사람에게 저유소를 통과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는 대답과 함께 우측의 문수봉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좌측의 산을 타고 넘어가면 발원지 계곡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애당초 개인적인 일로 시작한 일이라 공문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질 않았지만, 무척 서운하였다. 지적에 지름길을 두고 산에 올라가서 멀리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초반부터 발원지 답사의 고달픔이 예견되었다.

정문을 왼쪽으로 돌아 문수봉 쪽으로 향하여 가기로 하고 길을 들어섰다. 문수봉 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니 저유소 담장 밑에 발원지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보였다. 이곳으로부터 철조망으로 된 담장을 따라 문수봉 방향으로 한참을 올라가니 드디어 발원지로 추정되는 계곡이 서서히 모습을 들어왔다. 경사가 심해서인지 무척 힘이 들었지만 차가운 바람과 바윗단을 스치는 짙레꽃 줄기,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계속 오르기를 30여분, 드디어 담장의 제일 위쪽 망루를 지나게 되면서 맞은편으로 발원계곡이 훤히 보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지형을 살폈다. 지형도에는 하천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지점이 계곡의 남쪽 방향으로 나 있으나 현지지형을 보니 서쪽계곡이 발원지 같았다.

잠시 휴식 후 걸음을 재촉하여 고개의 안부로 향하였다. 안부에 도착하니 이곳은 한남정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잘 정비된 등산로로 저쪽 계곡으로 향하는 길이 훤히 나타나 있었다.

한참을 등산로를 따라 걸어가니 저유소의 담장과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반대쪽 계곡으로 향하는 길로는 빠른 것 같아 계속 걸었다. 드디어 발원계곡의 안부쯤 되는 곳에서 등산로를 벗어나 계곡으로 내려갔다. 계곡을 힘들게 내려가니 양쪽계곡이 만나는 지점의 너털지대 바위 사이로 약간의 물 흐름이 발견되었다. 전로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겨울철에도 물의 흐름이 지속되는 지점은 이기가 무성히 자

라고 이끼가 낀 지역을 따라 기다랗게 물 흐름이 계속된다는 사실이다.

계곡의 물 흐름을 따라 계속 내려가니 석유공사 후문이 나타났다. 여기서 보니 지나온 건너편의 철조망 담장도 보이고 또한 그 위로 문수봉이 훤히 보였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였다.

휴식 후 이번에는 계곡의 흐름을 따라 최고봉을 향하여 답사를 하였다. 계속 흐름을 따라 올라가니 산꼭대기의 약 8부 능선쯤 다다르니 우측에 큰 바위가 있고 이곳으로부터 약 50m쯤 상류에 작은 폭포 같은 것이 있어 낙엽을 헤치고 물을 찾아보니 물은 없었다. 다시 아래로 약간 내려가 양쪽계곡이 만나는 지점의 아래쪽 덩불속에서 흐름이 시작되었다. 여기를 경안천 발원지로 보고 GPS를 꺼내어 좌표를 보았다.

GPS 측정결과는 북위 37°09'59.4", 동경 127°16'26.5"로 확인되었다.

발원지를 찾은 후 계곡의 흐름을 따라 하류방향으로 내려왔다. 다시 좌측의 언덕에 있는 망루를 지나 산을 넘어 정문으로 하산하면 될 것 같아서 망루 쪽으로 올라가는 도중 아까의 발원지보다 더 길 것 같은 계곡이 산봉우리 쪽으로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닌가?

아차! 하고 방향을 돌려 계곡을 따라 경사가 급한 산비탈을 힘들게 올라가 보니 여기도 봉우리 정상 아래 자그마한 폭포를 끼고 그 아래로부터 물 흐름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 가져간 GPS로 좌표를 측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비교하리라 마음먹었다.

GPS 측량결과는 북위 37°10'02.0", 동경 127°16'31.0"로 확인되었다.

해가 질 시간이 되어선지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장비 중에 야간 산행을 위한 장비가 없어 무척 급하게 산을 내려왔다. 사실 이때부터 답사장비로 항상 야간 장비를 비상용으로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다. 망루를 지나 산을 하산하여 정문에서 경비아저씨 두 분과 한참을 얘기를 나누었다. 그분들 말로는 제일 나중에 찾은 발원지가 경안천의 발원지인 것 같으며 용인시내의 중학교 학생들이 매년 선생

님의 인솔 하에 찾아온다고 한다. 또한, 공문을 발송하면(관리과장 앞) 정문을 통과하여 발원계곡으로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에 찾아갈 청미천 발원지(문수산)로 향하는 주변을 돌아보았다.

2010년 8월 답사는 간간이 오는 비를 맞으면서 우중 답사를 하였다.

2004년 답사에서 얻은 정보를 참고삼아 이번에는 GPS에 수치지도를 넣어서 미리 발원지 후보지를 대략 정하고 표시를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8월 28일 토요일 아침에 날씨를 보니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다음이란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았다. 해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하였다.



(그림 8) 경안천 발원지 가는 길 안내판

용인을 지나 해곡동 발원지로 향하는 길 입구에 들어서니 “경안천 발원지 문수봉(문수샘)”이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아니 언제부터 경안천의 발원지가 문수봉 쪽으로 바뀌었지?’ 하면서 의아해 했다.

의문은 길을 따라 얼마쯤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풀렸다.

문수산 쪽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인솔자인 듯한 사람을 만나 물어보니 용인시에서 문수산 쪽에 “문수샘”이라는 경안천 발원지를 만들어 놓고 해마다 인근 지역의 학생들이 생태여행을 기획하여 많은 학생들이 다녀간다는 것이다.

나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하면서 가져간 GPS에

있는 지도를 보여주며 문수산 쪽이 아니라 석유비축기지 안 쪽을 지나 서쪽의 바래기산 쪽이 진짜 발원지라고 알려 주었지만 별로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림 9> 문수샘 (개인 blog(<http://kr.blog.yahoo.com/seoya1010/>))

하지만 어쩌랴? 용인시에서 만들고 관광지화 하였다면 이 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대략 짐작이 같다. 석유비축기지를 통과하거나 울타리를 뺨 둘러 가파른 산길을 돌아가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어 문수산 쪽으로 발원지를 변경한 것으로 짐작이 되었다.

하지만 발원지를 임의로 옮겨서는 안 되지 않는가? 한참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석유비축기지의 정문으로 올라가서 경비아저씨에게 물어 보았다.

‘경안천 발원지를 찾아서 왔는데 통과해도 되나요?’

‘경안천 발원지는 문수산 쪽 인데요 잘못 찾아 오셨어요. 저 아래 가는 길 안내판이 있으니 그리 가십시오.’

‘아니 진짜 발원지 말입니다. 이곳을 지나 뒤쪽 망루로 올라가는 후문 말입니다. 거긴데요.’

‘하여간 정문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옆의 산비탈로 올라가는 것은 말리지 못하겠지요. 그리 갈게요.’

경비아저씨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그냥 정문 오른쪽의 비탈로 올라가서 능선을 향하여 마루금을 타고 420고지 쪽을 향하여 걸어갔다.

능선으로 오르는 도중 간간이 가는 비가 왔지만 맞을 만했다. 요즘 들어서는 매일같이 비가 와 딱히 날 잡고 다시 답사를 온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져서 그냥 비를 맞으며 답사하리

라고 마음먹었다.

420고지 정상은 한남정맥구간의 등산로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다.



<그림 10> 경안천 발원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지도를 살피면서 정상 아래의 발원지를 찾아서 내려가니 바로 발원지 지형이 나타났다. 넓은 ‘U’자형 계곡의 끝 지점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발원지와 같은 지형으로 익숙한 지형이기 때문에 쉽게 찾았다. 더욱이 아래로 향하는 물길의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발원지 지점이었다.

가져간 GPS로 좌표를 찍고 사진도 증거로 찍었다.

이후 답사한 지점을 막 벗어나려고 하니 하늘에서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를 맞으며 바로 옆 계곡을 답사하여 정상 아래의 답사지와 유사한 지점의 후보지를 찾아 역시 GPS좌표와 사진을 찍었다.

다음으로 계곡의 아래로 내려가며 각각의 골짜기마다 발원지 후보지를 확인하며 석유비축기지 후문까지 내려갔다.

이후 1차 답사시와 같은 방법으로 좌측 언덕 위에 있는 망루를 지나 내려오려고 망루를 향해 올라가려니 사람의 흔적이 없는 지역이라 가시덤불, 커다란 역새 등이 가로막으면서 진행을 방해했고 역지로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한발씩 올라가다가 뭔가 ‘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왼손 새끼손가락을 중간을 벌이 쏘고 도망갔고 또 한 녀석은 오른다리 종아리를 등산 바지를 뚫고 쏘고 사라졌다.

경황이 없지만 일단 손가락을 쏘인 자리에 박힌 별침을 빼

고 그 자리를 벗어나니 서서히 손가락부터 마비가 왔다.

빨리 하산하여 시내에 가 약국이라도 들릴 요량으로 정신 없이 내려오는데 벌에 쏘인 자리부터 시작된 마비증상이 점점 진행되어 팔꿈치까지 진행되어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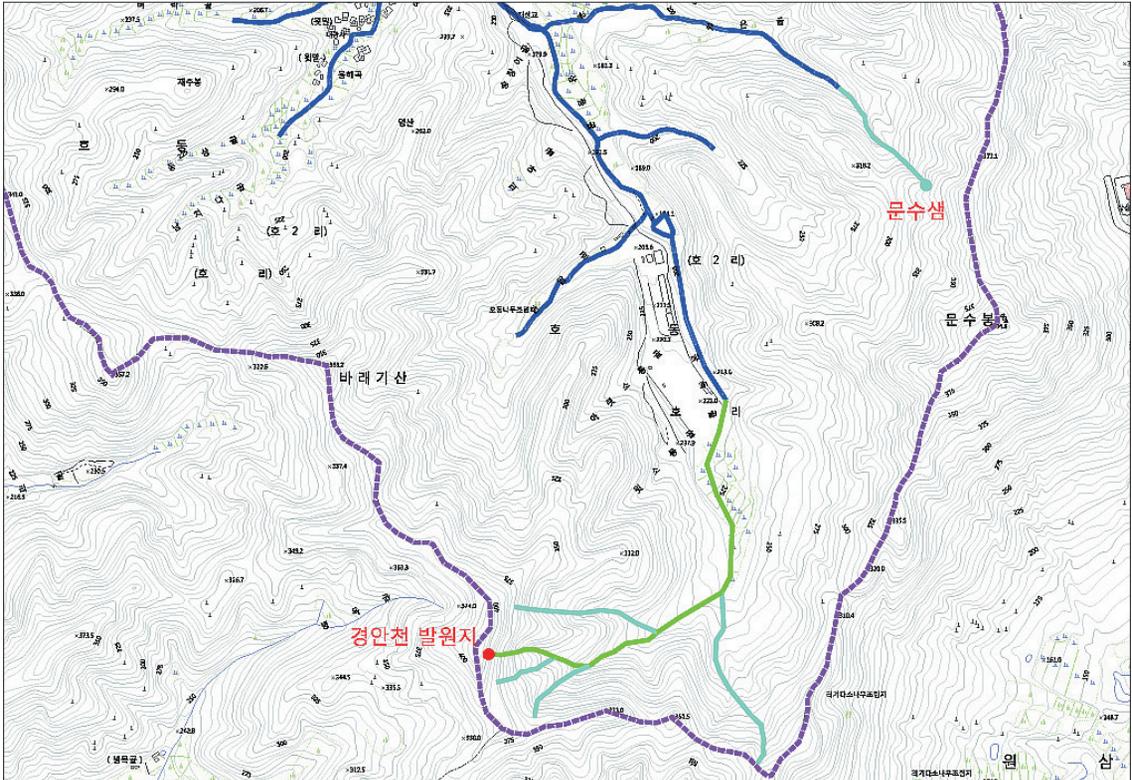
입으로는 벌독을 빨아 뱉으면서 한손으로 풀을 헤치며 정신없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119 구급대에 전화를 했다.

산을 내려와 한참을 기다리니 119 구급차가 왔고 구급차를 타고 용인시내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 들러 벌독으로 인한 해독치료를 받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두 번이나 나를 놀라게 한 경안천 발원지가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쓸쓸했다. 한번은 야간산행의 두려움을, 또 한번은 땅벌에 쏘이는 아픔을.

다음부터는 산에 갈 때 야간 산행장구와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구급약도 가져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으로 이번 답사는 마무리 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각 발원지 후보지를 지도에 옮기고 도상에서 계산한 바 경안천의 발원지는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 바래기산 남쪽의 420고지 남동쪽이며, 해발 400m 지점의 북위 37°09'59", 동경 127°16'22"(GRS80좌표계)로 확인되었다. 🌐



(그림 11) 경안천 발원지 위치도